



심심풀이 간식 달콤한 쿠키처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엠쿠키(대표 김명옥). 그 동안 SKT, KTF, LGT 이통 3사에 대박돈까스, 액션눈싸움, 마법진, 워터크라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 SVI에 새내기 벤처로 입주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엠쿠키 김명옥 대표를 만나본다.

전 직장팀원들과 의기투합해 회사 설립

엠쿠키는 김명옥 대표를 중심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게임, 만화, 포토,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개발한 경험을 가진 실력파들로 구성된 알짜배기 벤처기업이다.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아이티메카'라는 SI 업체의 콘텐츠 사업부에서 일했다는 김명옥 대표.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산통계학을 전공했던 김 대표는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콘텐츠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를 맞으며 한 순간에 정리되면서 김 대표는 콘텐츠 사업부

의 팀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엠쿠키를 설립하게 됐다고. 엠쿠키의 경쟁력은 창업멤버 전원이 계속 함께 일할 정도로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뛰어나다는 것. 또한 2001년부터 게임, 만화, 소설, 포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한 노하우도 갖추었다. 특히 게임 개발 능력 면에서 우수한 핵심인력 구성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받으며 기량에서도 한 발 앞서 있다. 처녀작인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인 '대박돈까스'로 2004년 9월 이달의 우수게임 상을 수상했고 이후에 마이라이프, 신시티, 카오스헤븐 등 20여 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시티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심심타파! 재미있는 게임 만들 것

엠쿠키는 현재 몇 개의 신작 게임을 개발 중이며 마이라이프2, 신시티3 등의 시리즈게임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게임시장은 경쟁이 점점 심해져 승패의 요인은 무엇보다 재미있는 신작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항상 선두 게임업체들의 게임을 주시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선두주자인 컴투스, 게임빌 등의 창의적인 게임과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엠쿠키와 규모가 비슷하고 개발력이 우수한 업체들을 눈여겨보고 있단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할 것인지, 우수한 퍼블리싱 업체들과 협력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심풀이 간식, 달콤한 쿠키처럼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김 대표. 얼마 전 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새로운 형태의 게임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이 많이 향상되고 있어 SNS/게임/채팅/커뮤니티가 융합된 VM 커뮤니티형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Killer Title 확보, 게임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네트워크 게임과 새로운 BM(Bench Mark)모델 개발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엠쿠키만의 색깔을 갖는 특화된 장르에 집중하여 개발력을 향상시켜 모바일 게임전문 회사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김 대표. 올해에는 "타이쿤, 건설, 육성시뮬레이션 등 특화된 장르의 게임 서비스의 차별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옥 대표가 말하는 "SVI"

다양한 지원시설과 여러 분야의 IT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어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육지원, 정부과제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영에도 좋아요!



"엠쿠키만의 색깔을 갖는 특화된 장르에 집중하여 개발력을 향상시켜 모바일 게임전문 회사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김명옥(왼쪽에서 3번째) 대표.